

# 전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탄력

### 여수국가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 구축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225억 원 투입... 세계시장 개척도 지원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부지비 포함)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 지구에 구축된다.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총괄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센터 구축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 구축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 △해의 시험기관 지정 등을 통한 해외 인증 지원 △케이(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생분해성 평

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화학이라고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미생물·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 원에서 2026년 303조 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079억 원에서 2026년 4426억 원으로 연간 16.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소재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전라남도

증·재자원화 등 원스톱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해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장비·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엔 선정된 평가·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인증도 지원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라산업국장은 "친환경 소재 수

요 증가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화이트 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바이오 산업을 융합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 구례군 섬진강에 다슬기 30만 마리 방류

### 자원 증식·어업인 소득 증대 위해... "쏘가리·붕어·메기·은어 치어도 방류 계획"

전라남도 구례군은 8일 다슬기 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어린 다슬기 30만 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전남도 섬진강 어류생태관에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슬기 자원 조성사업'의 하나다.

다슬기는 1급수의 강이나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로 섬진강에는 우리나라 다슬기 9종 중 2종이 서식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과 다슬기 수제비 등 음식 재료로 주목받는 다슬기는 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다.

김순호 군수는 "고갈 위기에 처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과 수중 생태계 회복을 위해 다슬기뿐 아니라 쏘가리, 붕어, 메기, 은어 등의 치어를 구만제, 서시현 등에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jhkim@skyedaily.com



전라남도 구례군은 8일 다슬기 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어린 다슬기 30만 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했다.

구례군

# 광주시 광산구 공유센터 문 '활짝'

### 생활·캠핑 등 118종 270여 개 물품·공간 등 대여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8일 '공유도시 광산'을 이끌어 갈 핵심 거점인 광산공유센터의 문을 열었다.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문을 연 광산공유센터는 물품과 재능을 나누고 단절된 관계를 이어 연대의 싹을 틔우는 거점으로 공유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의 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조성 공사를 마치고 5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기념행사는 센터의 실질적 '주인장' 이자 공유 가치를 실현할 주체인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산공유센터는 하남3지구에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됐다. 1층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2층은 물품공유실과 공유체험실이 있고, 3층은 공유부엌·공유정자실·재능프로그램실다목적실로 구성됐다.

물품공유실에는 캠핑용품·생활용품 등 118종 270여 개 물품이 비치돼 있다. 비치된 물품과 더불어 공유체험실·공유부엌 등 공간을 필요한 시민 누구나 빌려 사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공유 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광산공유센터에서 재능공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한편 관내 공유자원을 조사해 공유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유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허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8일 '공유도시 광산'을 이끌어 갈 핵심 거점인 광산공유센터의 문을 열었다.

광주 광산구

Time	8월 11일(금)	8월 12일(토)	8월 13일(일)	부대 프로그램
16:00~17:00	마인무대 누들(면) 빨리먹기 대회 & 누들 레크 타임	마인무대 누들(면) 빨리먹기 대회 & 누들 레크 타임	마인무대 대진광역시 태권도협회 태권도 시범단 공연	누들로드 (부대 프로그램) 누들맛집 푸드존 누들대전 주제관 누들 버스킹 누들 팝아트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팝핑 누들 3종 (EVENT) 누들 트래킹 EVENT 소비 인증 영수증 EVENT
17:00~18:00	유튜버 버거형 토크쇼 18:30~19:00	대진광역시 태권도협회 태권도 시범단 공연	누들 예술 공연 (아나영 밴드, 김나린)	
19:00~20:00	누들감성 Movie Night (리틀 포레스트)	개막식	누들대전(大觀) 연오리경연대회 (시상식)	
20:00~21:00	초청 공연 (김용필, 김이영)	초청 공연 (김용필, 김이영)	그린 캠페인	
21:00~22:00	그린 캠페인	그린 캠페인	그린 캠페인	

대전시가 소재동 철도 관사촌 일원에서 '누들대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누들 페스티벌 일정표.

대전시

# 대전시 11일부터 '누들대전 페스티벌' 개최

### 추억의 누들존 등 4개 코너 마련...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대전시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소재동 철도 관사촌 일원에서 '누들대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누들대전 페스티벌은 면의 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행사로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일보사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잊다 누들, 쥘마다 대전'

을 주제로 소문난 누들존, 누들의 추억의 누들존, 누들로드존 등 4개 행사존을 마련했고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1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누들 주제관, 누들의 후예들, 누들맛집 등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전통나래관 5층에서 열리는 '누들 컨퍼런스'에서는 스타셰프 '에드워드

관'을 만나볼 수 있으며 대전역 동공장에 가면 가락국수 반짜 시식존도 경험할 수 있다.

첫째 날인 11일에는 행사장 메인무대에서 누들 빨리 먹기 대회와 레크 타임, 유튜버 버거형 토크쇼, 누들감성 영화 '리틀 포레스트'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12일 개막식에서는 초청 가수 가흥을 돌린다.

이진규 기자 ljs@skyedaily.com

# 찾아가는 마음건강 주치의 담양군 '닥터 프렌드' 운영

전라남도 담양군은 노인 우울과 정서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마음건강 주치의 '닥터 프렌드'를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마음건강 주치의로 더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시형 원장을 위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음건강 주치의는 군민의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전반적인 문제를 조기 검진하고 상담하며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을 선별해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대한 연계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전화로 사전 신청 이후 매주 수요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던 상담에서 확대해 직접 찾아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며,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에 면별 보건지소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음건강주치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음건강 주치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기업, 학교는 담양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영성 기자 cys@skyedaily.com



전라남도 담양군은 노인 우울과 정서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마음건강 주치의 '닥터 프렌드'를 운영한다.

담양시

# 행안부 상반기 재정집행평가 보령시 4년 연속 최우수 선정

보령시가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안부 상반기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및 12분기 소비투자 집행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결과 총점 119.6점을 획득했으며, 이는 157개 시군 단위 자치단체 중 8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492억 원 대비 4199억 원을 초과한 3911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111.98%를 달성했으며 이는 충남내 15곳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1분기에 178억 원, 2분기에 320억 원을 초과 집행해 총 2305억 원을 집행해 2분기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보령시는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김동일 시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둔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집행관리로 4년 연속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며 "하반기에도 재정사업 집중관리로 신속집행 목표액 초과 달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진규 기자 ljs@skyedaily.com